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석무



인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인격자나 사상가를 성인(聖人)이라고 호칭한다. 일반적으로 오늘의 세계에서는 4대 성인으로 석가·공자·예수·마호메트를 거론한다. 공자를 제외한 세분들은 성인이자 신처럼 받드는 종교의 창시자가 되어 수많은 교도들이 그분들의 정신과 사상을 받들고, 그분들이 행한 행실을 본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다.

다만 공자는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유학(儒學)이라는 학문의 창시자가 되어 인류를 교육하는 교육자로서의 존경을 받고 있다. 보통의 인간들은 그런 4대 성인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성서(聖書)나 성경(聖經)을 필독서로 여기면서 그분들을 본받으며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는 책을 고르자면 첫째 예수의 말씀인 '성서'요, 둘째 공자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논어'이며, 그 뒤를 이어 석가의 경(經)인 '불경(佛經)'이요, 마호메트의 '코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성서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인간이 인간의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대로 읽지 않고 살

아가는 것도 사실이다. 석가와 공자, 마호메트와 예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들이 일상의 생활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면서 올바른 행동을 했었나를 알아가는 일의 하나가 바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통계를 보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한국인들의 독서율이 가장 낮다는 기록이 있다. 그것은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다. 영국 사람이 읽어야 하는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준 울곡 이이의 글이 있다. "성현들이 마음을 기울인 자취와 착함과 악함의 분별이야 할 일, 경계해야 할 일이 모두 책 속에 들어 있다. (聖賢用心之迹 及善惡之可效可戒者 皆在於書故也 : 격몽요결)" 라고 말하여 선악을 구별하고 본받거나 경계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책에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책을 읽지 않고서 옛날의 일이나 옛사람들이 살아왔던 자취를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옛날의 일이나 옛사람의 자취를 모르고 어떻게 오늘을 알며, 오늘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미래를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2012년은 다산 정약용의 탄신 250주년이다. 탄생 300주년인 루소, 150주년인 드뷔시, 서거 50주년인 혜세와 함께 유네스코는 그들의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이라 하여 다산을 포함한 4명을 기념인물로 선정하였다. 다산은 유네스코가 기념해주는 2관왕이 된 셈이다.

오래 전에 정약용이 설계하여 축조한 수원외곽의 화성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때문이다. 자신은 기념인물로, 화성은 기념물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니 2관왕이 아닌가. 올림픽 금메달에 환호하는 우리 국민들, 유네스코의 2관왕인 다산에게는 환호성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세계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인정하여 추앙해주는데 왜 나라 국민은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책을 읽는 독서율이 최하위이기 때문이다. 500권이 넘는 자신의 책, 이제는 많이 번역도 되었는데도, 읽어주는 사람이 없다. 책을 읽지 않는 국민은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세계적인 인물의 2관왕, 다산의 책이라도 읽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다산연구소 이사장·단국대 석좌교수>

독서율 최하위의 한국인

독서율 최하위라는 주장이 결코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준 울곡 이이의 글이 있다. "성현들이 마음을 기울인 자취와 착함과 악함의 분별이야 할 일, 경계해야 할 일이 모두 책 속에 들어 있다. (聖賢用心之迹 及善惡之可效可戒者 皆在於書故也 : 격몽요결)" 라고 말하여 선악을 구별하고 본받거나 경계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책에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책을 읽지 않고서 옛날의 일이나 옛사람들이 살아왔던 자취를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옛날의 일이나 옛사람의 자취를 모르고 어떻게 오늘을 알며, 오늘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미래를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2012년은 다산 정약용의 탄신 250주년이다. 탄생 300주년인 루소, 150주년인 드뷔시, 서거 50주년인 혜세와 함께 유네스코는 그들의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이라 하여 다산을 포함한 4명을 기념인물로 선정하였다. 다산은 유네스코가 기념해주는 2관왕이 된 셈이다.

오래 전에 정약용이 설계하여 축조한 수원외곽의 화성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때문이다. 자신은 기념인물로, 화성은 기념물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니 2관왕이 아닌가. 올림픽 금메달에 환호하는 우리 국민들, 유네스코의 2관왕인 다산에게는 환호성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세계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인정하여 추앙해주는데 왜 나라 국민은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책을 읽는 독서율이 최하위이기 때문이다. 500권이 넘는 자신의 책, 이제는 많이 번역도 되었는데도, 읽어주는 사람이 없다. 책을 읽지 않는 국민은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세계적인 인물의 2관왕, 다산의 책이라도 읽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다산연구소 이사장·단국대 석좌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로호 마지막 도전, 준비에 만전 기해야

나로호 3차 발사시기가 오는 10월 26~31일로 정해진 가운데 고흥이 우주를 향한 부푼 꿈과 함께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에 차 있다. 2차례의 실패를 딛고, 고흥에서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을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일 '나로호 3차 발사 관리위원회'를 열고 발사 준비 상황과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발사 시기를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 발사일과 시간은 향후 기상상황 등을 고려, 발사 시점에 임박해 결정하게 된다.

나로호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발사됐으나 모두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2009년 나로호 1차 발사 당시 1단 로켓 분리, 키모터 연소, 위성분리까지 성공했지만 한쪽 페어링이 분리되지 않아 실패로 끝났다.

이듬해 2차 발사도 1차 발사 때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서 통신이 끊기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상단 비행중단시스템에 오작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번에는 저전압 페어링 기폭장치로 기폭시스템을 변경했다. 이번 3차 발사는 2번의 실패를 통해 발견한 페어링 분리와 기폭시스템 등 문제점을 보완한 뒤 이뤄지는 것이어서 그만큼 성공 기대감도 높다.

우리는 지난 1992년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1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모두 외국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따라서 이번 발사에서 성공할 경우 나로호는 우리 발사체로 사할린 최초의 위성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우주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중요한 도전인 셈이다.

더 이상 실패란 있을 수 없다. 그런 만큼 발사 시나 비용에 얽매어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도 말로 완벽한 준비로 성공 발사를 일궈내 독자적인 기술 확보의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광주 도급택시 무자격자 판치고 있다니

광주지역 법인택시 회사들이 전과자, 무면허 운전자까지 고용해 도급제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택시기사 구인인이 심해지면서 무자격자를 채용해 교통사고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 밤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영업용 택시가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도 운전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로 밝혀졌다. 운전자 김모씨는 지난 2008년 8월 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또다시 인명사고를 내 2013년까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번 사고는 광주시에 택시업계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예견된 일이나 다를 바 없다. 현재 광주지역에서 운행 중인 법인택시는 76개사, 3471대에 이른다. 이들 택시가 '1일 2교대'로 운행할 경우 6000여명 이상의 운전자들이 필요하지만 42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인택시 회사들이 '1인 1차량'이나 도급제로 운영

을 한다는 게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도급제란 회사가 정식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택시를 대해해 운전자로부터 일당액을 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무자격 기사가 운전대를 잡아도 방치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달리는 폭탄'에 몸을 맡기는 셈이다. 자격이 있고 경력 많은 운전기사도 사고가 잦은 판에 무자격자라니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성범죄 전과자가 운전을 한다면 범죄 개연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고 발생시 보험도 문제가 된다. 무자격자 사고일 경우 회사 측이 가입한 책임보험만 보상받게 돼 이종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광주시와 경찰 등 관계당국은 불법 운행 중인 도급제 및 무자격 택시에 대해 면허를 회수하는 등 엄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 또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의료 칼럼



허정

무상의료의 빛과 그림자

된 의료기술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한국의 의료는 발전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시작한 의료보험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현대 의학의 이용과 접근성이 쉬워지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 의료혜택을 받아 국민들의 건강수명 및 평균수명이 30년 사이 20년 이상 길어졌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많은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도에까지 도달했다. 현대 의료는 하루가 다르게 상상을 초월해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의료인의 지속적인 양성과 지원이 필수적이고 최첨단 의료장비 시설에 대한 끝없는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의료계에 몸담고 의료계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한국 의료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이 앞선다.

첫째로 현재 우리나라는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 의학의 연구와

발전, 투자에 대해 정부 및 일반국민들의 무관심이 크다. 이로 인해 기초의학의 발전이 임상의학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매우 걱정스럽다.

둘째로 현대의료의 특징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투자가 필요한 데 국가적·사회적 이해 부족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미래를 위한 재투자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국민들의 의료 이용 패턴이 대형 병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형적으로 대형병원에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넷째로 의료는 수도권 중심이 심화돼 유능한 의료 인력과 시설 불균형이 심각하다.

다섯째, 정책을 만드는 정치권 및 관리들의 의료에 대한 인식과 이해부족으로, 의료를 크게 후퇴시킨 많은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선거공약으로 무상의료

등 국가가 감당할 수 없고, 향후 고령화 사회에 큰 부담이 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커다란 우려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미국의 10분의 1정도, 일본의 5분의 1정도에 불과하지만 전 국민이 최고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로 인해 향후 의료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

한번 잘못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일부 의료급에 환자의 입원 및 무료 진료가 시작되면서, 예전엔 외래진료로도 충분했던 환자들까지 입원환자로 전환됨으로써 의료자원의 낭비가 극도로 심해지고 있다. 이렇듯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함이 당연하지만 끝없이 낭비되는 의료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무상의료는 의료의 수직적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에는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천병원장>

기고



위인규

물로 행복해지는 세상 만들려면

세계 평균인 807mm보다 1.6배나 많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평균 강수량은 2629mi로 세계평균에 약 14%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지난 세기 동안 세계의 인구는 약 2배로 늘어났으나 물 사용량은 6배나 증가해 세계 인구의 약 40%가 물부족에 직면해 있다는 통계다. 우리나라도 이미 1993년 유엔이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같은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담아두는 댐, 그 물을 정수해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 건설이 필요하며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통해 버려지는 수돗물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도관 길이는 대략 16만5440

km로 집계되고 있지만 이중 21년 이상 경과된 수도관이 21.6%인 3만5800km나 차지하고 있고, 15년 이상 노후관까지 합치면 전체 상수도관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노후관으로 인한 최근 10년간(2001~2010년) 수돗물 누수량은 대략 75억여톤에 주입된 저수량의 10배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댐과 상수도시설 건설에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건설기간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물부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이 피부여와 달기 전에 사전에 미미미리 준비하고 볼 일이다.

저렴한 수도요금에 물을 낭비하는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한국의 수도요금은 전국평균 1t당(정수 기준) 610원으로 덴마크 4612원, 독일 3555원, 프랑스 3459

원, 영국 2210원, 일본 1580원과 비교하면 현저하게싼 반면 지난해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가 조사 발표한 31개국의 한 사람당 하루 수돗물 소비량을 보면 한국이 333ℓ로 프랑스 232ℓ, 독일 151ℓ, 영국 139ℓ, 덴마크 114ℓ 보다 월등히 많다 하니 위 주장의 타당성을 부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민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바탕인 중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애써 외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전국 수도요금은 2010년 기준 생산원가의 78.5%에 불과하다고 하니, 모두가 인정하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우리 모두가 물로 더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 요금 현실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전 광주교섭 판사>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실업급여 더 높여야

아내가 3년 전쯤에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때 기억으로는 거의 100만 원 정도 매달 수령받은 걸로 안다.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되면 순간적으로 막막하기도 하고 생활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맞벌이 부부의 가장이 실직을 할 경우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그나마 6개월간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가계에 단기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직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절박한 실업급여의 액수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장기 실직자에 대한 혜택도 없어서 더 문제다.

실직을 한 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정부가 공식 산정한 최저임금 수준인 한 달에 최대 112만 원이다. 하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많이 적은 편이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더 그렇다.

우리나라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둘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득보존율인 58%의 절반 수준인데 놀랄게도 최하위라고 한다.

또 통상 8개월까지만 지급하다 보니 실직 기간 5년까지 꾸준히 실업급여를 주는 외국과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는 사실상 장기 실직자의 대책은 거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실업수당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하루 4만 원으로 한도를 낮춰 구직 활동의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물론 실업급여를 인상하거나 장기적으로

지급을 하면 재취업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재정 부담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실업자 누구든지 취직과 실업수당을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결 택할까. 당연히 취직을 택하지 실업급여를 계속 받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기태·광주시 광산구 울목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기원 전 3세기경 그리스 북부의 에페이로스 왕 피로스는 2만5000명의 군인과 20마리 코끼리로 로마를 침공, 헤라클레스와 아스킬로스에서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는 군대의 3분의 1 이상을 잃었다. 승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피로스는 "이런 승리를 한 번만 더 거두면 우리는 망한다"고 말했다.

이것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며, 손실이 많으면 이겨도 이겼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전략을 잘 세워 가능한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하고, 만약 피할 수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자보이전승(自保而全勝) 스스로 보존하면서 온전한 승리를 얻는다는 뜻이다. 손자병법 13편의 6109자 중 딱 한자만 남기려면 곧 전(全)이다. 여기서 전은 완전(完全)이 아니라 온전(穩全)의 뜻이 더 강하다. 완전한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것을 잃지 않고 잘 지켜낸 승리라는 의미다. 손자병법의 핵심은 '현명하게 잘 싸우는 법'이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양국 정상과 외교장관이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놓고 잇따라 회동해 격화된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전환되는 듯 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일본이 자국 신문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광고를 냈다. 일본 총리가 대화를 하자더니 '뉘뉘수'를 때리는 꼴이 됐다.

우리 정부도 곧바로 '일본 국민을 상대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한국 땅'이라는 언론 광고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일 양국 간 안보·경제협력과 독도·과거사 문제는 별개로, 일본과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하되 영토나 과거사 문제는 타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손자병법에서 말한 '완전'이 아닌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정부의 현명한 처신과 대처가 필요하다. 해병대 독도 상륙작전 취소와 같은 엉거주춤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